

화학산업, 시가총액 비중 4위 불과

증권선물거래소, 업종간 격차 완화추세 ... IT 선전에 통신산업 부진

화학분야의 시가총액 비중이 2000년 말 6위에서 2005년 4위로 2계단 상승했다.

2월13일 증권선물거래소의 <유가증권시장 업종별 시가총액 비중 현황>에 따르면, 시가총액 상위 5개 업종인 전기전자, 금융, 운수장비, 화학, 유통이 시장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말 76.4%에서 2월9일 68.3%로 낮아졌다.

상위 5개 업종의 비중은 2001년말 73.6%, 2002년말 74.0%, 2003년말 70.4%, 2004년말 69.0%, 2005년말 68.5%로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냈다.

반면, 시가총액 중위 6개 업종인 통신, 전기가스, 철강금속, 서비스, 건설, 음식료 비중은 2000년말 17.4%에서 현재 23.7%로 늘어났으며, 하위 7개 업종 비중도 3.8%에서 6.4%로 증가했다.

중위 6개 업종의 비중은 2001년 말 20.1%, 하위 7개 업종은 4.4%, 2002년말에는 19.8%, 4.6%를 기록해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03년말 22.7%, 5.6%, 2004년말 24.1%, 5.4%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.

2005년말에는 각각 23.4%, 6.9%로 늘어났다.

상위 5개 업종 내에서 업종간 순위 변동도 활발했다.

2000년 2위를 기록했던 전기전자(IT)업종은 현재 1위로 올라섰으며 금융과 운수 장비도 각각 3위에서 2위로, 5위에서 3위로 뛰어 올랐다.

또 화학과 유통은 2000년말 6위와 9위로 중위 업종에 속했으나 현재 4위와 5위로 상승했다.

IT업종의 2000년말 시가총액 비중은 20.9%로 비중 1위인 통신업종에 이어 2위였으나 2001년 이후 1위로 올라서 현재는 27.4%를 나타내고 있다.

반면 통신업종은 시가총액 비중이 2000년말 23.7%로 1위였으나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18.6%p 감소한 5.2%로 6위로 떨어졌다. (서울=연합뉴스 박세연 기자) <저작권재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2/14>